

소프트웨어 專門家 자세

다원화 사회에서는 지적 엘리트인 전문가들이 각광을 받으리라고 한다. 정보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요즘의 컴퓨터 전문가들의 경우가 그 대표적 예이다. 전문가를 오로지 한가지 일에 몰두하여 연구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면 소프트웨어 전문가는 무쇠덩어리에 불과한 컴퓨터에 혼을 불어 넣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 근무자에게는 남다른 품성이나 자질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기회능력·창조력·인내력 등이며 그 중에서도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창조력 없이는 혼이 없는 식물 인간을 만드는 역할밖에 못할 것이다. 살아움직이는 작품 하나없이 혼히 전산실에 오래 근무했다는 경력만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학력이나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것 만으로, 또는 깊은 지식없이 얻어들은 귀동냥이나 캐털로 그등의 짧은 지식만으로는 절대로 전문가의 경지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혼신을 다하여 작품으로 이야기하는 자만이 진정한 전문가일 것이다.

정보화사회로의 전환기에 접어든 지금 전문가의 역할이야말로 올바른 궤도 진입의 길잡이이며 그들은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야 할 중대한 위치에 있다할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소프트웨어 전문가는 자기의 지식을 연마하



朴鐘鉉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 회장
한국통신 전산사업단 단장

여 항상 새롭게 하고, 타인의 무지를 절대로 악용하지 말고 자기가 터득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언제라도 나누어 주기를 꺼려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함께 타인의 전문영역을 범하지 말고 자신보다는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전문지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또한 자신의 전문지식을 팔지 말고 자신의 아집을 내세우지 않으며 자신의 기술에 혼을 담을 수 있는 도의 경지에 이르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가 사적인 이익에 악용되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때는 술선해서 신명을 다바쳐 막아야 하며 언제나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권위를 스스로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